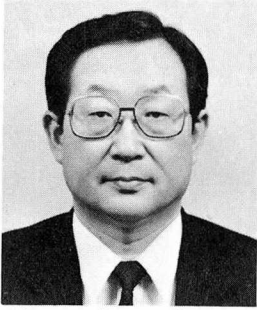


# 위험관리 활동의



최영식

〈인국화재해상보험(주) 상무이사〉

## 1. 대형사고는 주기가 있는가

현대사회는 산업발전도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유형도 단순한 화재에서 가스폭발, 태풍, 집중호우, 항공기 추락, 환경오염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규모면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2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대형 사고를 정리해보면 〈표1〉에서와 같다. 1800년대 仁政殿火災(1803)를 비롯하여 20~30년을 주기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900년대에는 대동탄광화재(1940년)·부산국제시장화재(1953년) 등 10~15년을 주기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대연각호텔화재(1971년)와 서울시민회관화재(19

72년)는 우리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참혹한 사고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고를 분석해보건대 대형 사고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발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추론을 갖게 된다.

주기에 있어서는 30년에서 20년, 10년, 5년등으로 그 싸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 2. 국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

우리나라에서 위험관리 업무를 처음 시작한 곳은 1973년에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라 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대연각호텔화재와 서울시민회관화재 등 대형화재

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국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게 된 기관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 등 7대도시의 특수물건(4층 이상 건물, 1000㎡ 이상의 공장건물 등 13개 유형)에 대한 화재안전점검과 화재보험 POOL제도의 시행을 통한 방재사업이다.

한편 안국화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1979년에 위험관리팀을 조직하여 위험관리업무를 개시하였고, '81년에는 課 단위부서로 조직되었다.

그후 당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표1〉 국내대형사고 일지(1800~1990)

일 자	피해 내용	일 자	피해 내용	
1803. (순조3년)	仁政殿 소실	1972.12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망:53명	
1825. (순조24년)	景福宮 소실	—피해액:3.5억원	1974.1	구미 윤성방직화재 —피해액:90억원
1857. (철종8년)	宣仁門 소실	1982	태풍 주디및 어빙 남해안강타	
1881. (고종18년)	昌德宮 소실	1983.10	풍한방직 화재 —피해액:147억원	
1940.3	대동탄광화재	1983.9	KAL기 공중피격 —사망:267명	
1953.1	부산국제시장화재 —사망:20명 —이재민:18,000여명	1985.4	태광산업화재 —피해액:178억원	
1953.11	부산역전 주택화재 —가족소실:1,250호	1989.10	럭키여천공장폭발 —사상자:29명 —피해액:300억원추정	
1960.	부산국제고무공장화재 —사망:62명 —피해액:1억원			
1971.12	서울 대연각호텔화재 —사망:163명 —피해액:8.3억원			

# 영역확대가 필요

경영효율화 지침으로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독려하였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1985년 부터 단위부서로 조직하여 위험관리 업무를 개시하였다. <표2 참조>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1989년 11월에 한국위험관리학회(KRIMS)가 창설되어 바야흐로 위험관리를 학문으로 다루기 시작해 앞으로 미국의 위험관리협회인 RIMS와 일본의 위험관리학회인 JARMS와 같은 위험관리분야의 눈부신 활동이 기대된다.

### 3. 기업이 해야 할 위험관리 활동

기업은 제조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관리지침서 대로 모든 조직관리와 업무한계를 표준화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사가 약 7백여 개의 업체에 대한 위험도 조사(RISK SURVEY)를 실시해오면서 느낀 다음과 같은 사항만은 중점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 부서간에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있어서는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호간에 신속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일개 부서가 너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표2> 손해보험회사 위험관리 기구 및 업무현황

(1989.12 현재)

회사명	설치일자	인원	업무 내용
화협안국	73. 7 81. 3	15 13	위험도조사, 기술서적편찬, 위험관리교육 위험도조사, 자동차안전관리, 기술서적편찬, 세미나개최
재보제일	84.11 85. 7	3 9	위험도조사, 세미나개최 위험도조사
럭키현대	85. 9 86. 1	11 11	위험도조사, 기술서적편찬 위험도조사, 세미나개최
대한해동	86. 1 86. 4	4 6	위험도조사 위험도조사
국제동양	86. 7 86. 9	3 6	위험도조사 위험도조사
신동아고려	86. 9 86.10	4 3	위험도조사 위험도조사
자보	86.10	7	위험도조사

위험관리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활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참고로 기업의 각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험관리 기법과 협조관계를

소개하면 <표3>과 같다.

나. 안전관리는 전직원이 참여토록 한다.

안전관리 업무는 위험관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데 기업에서 안전관리부서라 하면 대개 수행하는 업무

<표3> 기업의 위험관리 기법과 담당부서

위험관리의 단계	내 용	담당부서	
위험의 파악	물적위험 화재·폭발 사고 기계 사고 조립사고	안전관리과	
	배상책임위험 생산물 사고 폐수오염 사고	총무과	
	인적위험 종업원 상태	인사과	
위험의 평가	각 위험의 성질·크기·빈도를 검토하여 손실규모를 측정	공무과	
위험의 처리	개선 회피 보유 전가	제도개선·시설보수 하청 자금적립 보험가입	기술과 경리과
	확인 및 재조정	보험부보현황 위험처리효과	안전관리과 경리과

량과 내용에 비해 생산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경영자가 안전관리부서는 사업경비나 인력을 낭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현상만을 본 근시안적 시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성 향상과 결부되어 회사경영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한예로 지난 89년 10월 미국 필립스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와 10억불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공장을 복구하는데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안전관리 업무는 어느 개인 혼자서 열성을 다한다고 잘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전직원이 참여해야 하고, 특히 경영자의 관심이 그 회사의 안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보험관리에 인전을 기한다.

보험은 위험관리 기법에 있어 최후의 대비책이므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보험가입에 있어 주요한 체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적정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가
- 위험에 대응한 담보조건은 잘 선택되었는가
- 사고로 인한 생산중단시 기업휴지보험으로 처리할 것인가
-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검토되었는가
- 생산물 하자로 인한 기업의

배상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 4.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업무 방향

위험관리업무의 출발이 늦었던 일부 손보사는 3~4년의 연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여년을 보험업계의 위험관리업무 도입기로 본다면, 향후 10년인 2000년까지는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화재보험 Pool 제도의 해체와 재보험 자율화, 해외재보험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대비 등으로 위험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 Underwriting 기술 향상

Underwriting 기술 향상은 보험사업자의 수익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할인·절감등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분야에 한층 더 깊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화재보험 이외의 기계보험, 건설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EML평가 기법의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므로 선진국의 기술도입과 자체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나. 위험관리업무 영역의 확대

지금까지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활동은 재산보호 측면의 방재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고임금 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재해예방 측면에 대한 활동이

요구되며 수출증대에 따른 미주지역 및 EC지역의 생산물배상책임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문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각 손보사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손해를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세계1위의 불명예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위험관리 활동으로 보험회사는 많은 기업으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기업은 보험자에게 적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많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 업무를 보험회사와 기업이 협조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